

“참선으로 정의·평등 실현 앞장”

탐방 부산불교법조인회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한 최일선에 선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과 죄를 심판하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신을 내려놓는 수행을 우선하는 사람들. 바로 부산불교법조인회(회장 안석태) 회원들이다.

부산불교법조인회는 88년 4월 법조인 불자들의 수행 및 신심 증진을 목적으로 60여명의 발기인이 모여 창립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왔어도 모임의 규모나 구성원들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사보다는 안으로 자신들의 수행 점검과 내실 다지기에 전념해 온 때문이다. 매일 한

번의 정기법회에는 각성스님, 무비스님, 강정진 거사, 천명일 거사 등을 초빙해 신심과 지혜를 심화하고 있다. 또한 연말의 불우시설 방문, 운주사, 홍곡사 등의 사찰순례, 신년의 가족법회도 빼놓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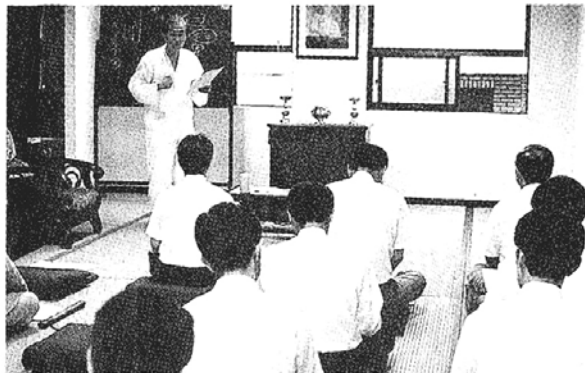
특히 이들 부산불교법조인회 회원들은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평소 개인의 수행에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자 사찰이나 집에서 참선이냐 경전공부 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회원들은 세상에 대한 자율적인 관망에 평등하고 정의를 위해 내리

1988년 60여명 창립 매월 법사초청 법문 “교계 권익·정재수호”

치는 칼날이 결국은 자비여야 함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내면의 불성을 깨닫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회적으로 불교계의 권익 신장과 삼보정재 보존 등에도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불교계 여기 저기 대두되고 있는 사찰환경권 침해사례, 종교용 건물이나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문제



7월6일 부산불교법조인회 법당에서 천명일법사 초빙 정기법회 모습. 법사초청을 공부하고 있다.

당사자인 사찰이나 불자들이 법을 너무 몰라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김백영 총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함은 물론 불교계의 권익 보호와 삼보정재 보존에도 솔선수범 하는 법조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1hcheon@buddhopia.com)



자명사 무설전 개원·백옥와불 이운

홍천 자명사(주지 효성)는 5일 무설전에서 개원법회 및 백옥와불 이운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륜종 종정 일화스님, 총화종 前 종정 아옹스님, 법륜종 총무원장 해우스님을 비롯 대만 만불사 부주지 상상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했다. 무설전은 4천여명 대지에 지상 2층 규모이며 자명사에는 태극승왕이 2천5백년 동안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파가 봉안됐다.



98 자원봉사자 대회

사회복지법인 대구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는 7월7일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98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1천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인 조순자보살(자비의전화)과 박종명보살(복지회운영위원), 5백시간 이상 봉사자 8명 등 총 53명의 자원봉사자가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상담전화, 자비의 전화 등 10여 봉사단체 소속 3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불교복지회 '98 자원봉사자대회

조계종 산하 어린이집 증사자 연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지난 4~5일 원주 치악산내 자연학습원에서 종단 산하 어린이집 증사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재단 및 불교중앙교원 소속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등 1백50여명이 참가했다. 5일 구룡사에서 열린 회향식에는 조계종 사회복지부장관, 구룡사 주지 삼지, 자연학습원장 현각스님이 참석,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련선우회 창립 2주년 법회

우리는선우 백련선우회는 4일 길상사에서 창립 2주년 기념 법회를 가졌다. 우리는선우 고문 김중서박사, 남지심 공동대표를 비롯 백련선우회 상대용 회장, 상조회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중서 박사는 “불교포교사로서의 철저한 사명감으로 임종봉사, 장례봉사, 안구시술 등의 활동에 임하라”고 격려했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임원수련회.

하심하는 자세로 직장보살의 사원을 실천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남북 충청지부장은 “열린마음으로 맨투맨식 접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며 “차량에 염주달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했다.

종합토론에서 유화영 기획국장은 “각 종단과 연계하여 연합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의하고 심포지엄을 정리했다.

수련생들은 철야정진을 한 뒤 새벽 도량식과 새벽예불에 정원이 참석했다. 또 8시부터 참선과 발우공양, 교리공부, 자연보호활동을 펼쳤다.

한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호남지부(지부장 문기중)는 지역조직을 강화하여 내년 창립5주년기념 연합회 수련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하나바다 여름불교학교 열린다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4.5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제19차 부산어린이지도자연수회(사진)를 개최했다. 심성프로그램, 사찰습의, 협동공동체놀이, 찬불가,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1박2일의 연수회에는 2백여 지도자가 참여했다. 이번 연수회는 특히 여름 불교학교 운영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IMF 시기를 맞아 알뜰한 하나바다 여름불교학교 만들기에 의견을 모았다.

불국토 이사장 정관스님, 법산스님 등이 참여한 입제식에서 정여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지같은 아이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과 깊은 마음의 뿌리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하심하는 마음으로 재소자 교화”

전국불자교정인 임원 수련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4.5일 직지사에서 전국 4개지부 38개 지회 1백82명의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4주년 기념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입제식에서 오희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육화사상에 의하여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열린 재소자 포교방안 심포지엄에서 박근호 영남지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천2백여 회원이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자”고 말했다. 임장수 서울지부장은 “재소자들에게

우리 모임에선

천태종 교불련수련회

천태종 전국교원불자연합회(회장 전찬택)는 31일부터 8월3일까지 구인사에서 제7회 수련대회를 봉행한다.

이번 수련회는 전국 유치원, 초·중교원, 대학교수, 교육전문직업에 종사하는 불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7월25일까지 (0444)20-3309.

영등포교도소 찬불가경연

영등포교도소 불심회(회장 이영주)는 29일 오후1시 대강당에서 재소자 찬불가경연대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재소자들이 법회에 참석하여 배운 찬불가를 독창과 합창으로 나눠 참가할 예정이다. (02)619-2781

월성원전 불자회 법당불사

금융단불교련·강릉경찰서는 기금조성

직장불자회가 시행에 근간을 이루는 법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월성원지력발전소 반야회(회장 구한모 소장)와 마야부인회(회장 박순희)는 6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법당인 반야선원을 개원했다.

2층규모의 단층건물인 반야선원에는 기립사에서 기증한 관음탱화와 신중탱화가 봉안됐다.

월성원지력발전소 반야회는 89년 직원부인모임인 마야부인회가 창립된 데 이어 95년 결성됐으며, 현재 회원은 1백여명. 그동안 인근사찰과 복지관을 옮겨다니며 법회를 열어왔다.

양성익총무는 “반야선원이 사택안에 자리해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전의 모든 사업소에 불교신행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6월 창립한 한국중신불자회(회장 김문수)는 8월 분당사육신축이전과 함께 법당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김문수회장은 “한국중신불자회 전국연합회 결성을 올려내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본사에 법회공간 확보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산금속 안강법우회(회장 최인식)는 1백96평 부지에 3층 건물로 불교회관을 건립중인데 지난해 4월 2층을 올린데 이어 3층 시공을 준비 중이다. 또 회원들은 불교회관을 불국사 직할포교당으로 헌납하여 운영



월성 원지력발전소반야회는 6일 자체법당인 반야선원을 개원했다.

을 원활히 하고 있다. 최인식회장은 “여유부지에 유아원도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하용이)와 강릉경찰서 불자회(회장 김태식)도 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법당 마련 기금을 모으고 있다. 금융단불교연합회 하용이회장은 “금융단연합회 결성과 함께 자체법당을 마련하는 것이 현안이었다”며 “10주년을

대원불교대학

학생 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통신문과 00명
- 강의시간: 출강/통신문: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 교과목: 주5일 수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8월 31일까지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식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756-7258

삼화불교대학 학생 및 편입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문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문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문		

2. 학교연혁

- 1989.7.3 학교설립신고
-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8 불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 91.8 불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8 불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8 중국 남경 중의대학교와 불교체결
- 95.11 불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 96.11 불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
-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7월 28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선당첨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 ~ 8 FAX. 511-108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WWW.Buddho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원불교 삼화불교대학